

작품 내용

제 목	불꽃 하나
내 용	봄날이 피워낸 꽃 한 송이와 바다가 밀어 올린 파도 소리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의 낮은 숨결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들은 자연이 인간에게 조건 없이 선물한 커다란 도서관 자연은 단 한 번도 주인을 따지지 않았고 영감을 준 대가로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그 넓은 품에서 색채를 빌려오고 그 다정한 소리를 베어 와 멜로디를 채웠을 뿐 자연이 베푼 거대한 기적 속에서 우리는 고작 나만의 작은 한 줄 엮어놓는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울타리를 세우고 정작 타인이 밤새 피워낸 온기는 너무 쉽게 흠치고 짓밟아 무너뜨린다 고개를 들면 청명한 하늘이 눈에 가득 차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바람이 뺨을 스친다 넓은 품 앞에서 주머니 속 움켜쥔 손이 작아진다 이제는 울타리를 허물고 가만히 손을 모아본다 네가 꺼내놓은 작고 위태로운 불꽃 하나 꺼지지 않게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싸 안는 밤